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제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과

문영배

2010년 8월

**A Study on the Impact of Ethical Perspective  
and Professional Commitment of Accountants on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Young-Bae Moon**

**(Supervised by professor Sang-Bong L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Business Administration**

**2010.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박사학위논문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이 상 봉

문 영 배

이 논문을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8월

문영배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1952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0년 8월

## **Abstract**

# **A Study on the Impact of Ethical Perspective and Professional Commitment of Accountants on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Young-Bae Moon**

Department of Accounting

The Graduate School of Jeju National University

Managers routinely make accounting choices that affect earnings within the guidelines of GAAP. But accounting choices made in compliance with the GAAP are not necessarily ethical decisions at all the times. Nevertheless, it is unethical if the accounting choices are intended to mislead or defraud investors. This study is motivated by potential losses from which investors could suffer because of the questionable accounting practice by the invested company. It is further motivated by the literature, "The Effect of Ethical Orientation and Professional Commitment on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 C. Greenfield Jr. 2005).

The study aim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relationships among professional commitment, ethical orient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The preceding literature is mostly focused on managers, in order to study their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In contrast, this research focuses on accountants and their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As a study aiming to understand how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is formed, the study first examines whether the ethical perspective of an accountant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Secondly, the study examines whether professional commitment influences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A sample population of 285 accountants was selected from DART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http://dart.fss.or.kr/>).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study adopts an empirical survey method for research. The concepts of earnings management, ethical perspective is established by reviewing literature through textbooks, dissertations, and periodicals. The survey questions are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circulated for response by sending the questionnaires via postal service or facsimile, mainly to the listed companies (subject to external auditing). Statistical analysis is conducted using SPSS 16.0 for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nd t-test.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consistent with the preceding studies by Shaub, Finn and Munter(1993), Douglas and Wier(2000), Elias(2000), Greenfield Jr.(2005), which indicates that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n individual's ethical orientation and ethical decisions. First, it reveals that when the idealistic ethical orientation is higher,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becomes lower and less likely to manipulate earnings. But when the relativistic ethical orientation is higher,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is higher and more likely to manipulate earnings. Secondly, it shows that when the professional commitment is higher,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is lower; and when the professional commitment is lower,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is higher. This indicates that an individual with a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commitment is less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while a lower level of professional commitment is more likely to engage in earnings management practic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uld provid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ethical attitude in the perception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should also contribute to heightening the need of and providing insight for ethical education in accounting.



## <목 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배경 .....	1
제2절 연구목적과 범위 .....	3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	5
<b>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b> .....	<b>7</b>
제1절 이익조정 .....	7
1. 이익조정 개념 및 방법 .....	7
2. 이익조정 목적 .....	10
3.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	14
제2절 전문분야몰입 .....	19
1. 전문분야몰입 개념 .....	19
2. 전문분야몰입에 대한 선행연구 .....	22
제3절 윤리관과 이익조정 .....	24
1. 윤리관 개념 및 유형 .....	24
2. 윤리관과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	27
<b>제3장 연구설계</b> .....	<b>30</b>
제1절 연구모형 .....	30



제2절 가설설정 .....	32
1.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 .....	32
2.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 .....	34
제3절 연구방법 .....	35
1. 설문지 설계 및 자료처리내용 .....	35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37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	39
<b>제4장 실증분석 .....</b>	<b>41</b>
제1절 예비분석 .....	41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기술통계 .....	41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3
3. 상관관계분석 .....	45
제2절 분석결과 및 논의 .....	47
1. 가설검증 .....	47
2. 표본의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	51
<b>제5장 결론 .....</b>	<b>55</b>
참고문헌 .....	58
설문지 .....	67

<표 목차>

<표 2-1> 전문가의 특성 .....	20
<표 3-1> 설문지의 구성 .....	36
<표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	41
<표 4-2>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	42
<표 4-3> 윤리성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4
<표 4-4> 전문분야몰입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	45
<표 4-5> 상관관계분석 .....	46
<표 4-6> 가설검증결과 .....	48
<표 4-7> 직장 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	51
<표 4-8> 업무 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	53
<표 4-9> 직급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	54

<그림 목차>

<그림 3-1> 연구모형 .....31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배경

최근 국내외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 가운데 윤리경영 실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엔론(2002), 우리나라의 기아(1998), 대우(2000), SK그룹(2003) 사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회계부정사건(분식회계)은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경영자는 일상적으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정책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의 범위 내에서 의사결정을 한다. 예를 들어, 경영자는 GAAP의 범위 내에서 정액법 대신 정률법을 선택하여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 더 많은 비용을 계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회계정책결정이 비록 GAAP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것일 때, 그것은 비윤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윤리적 관점에서 회계정책결정이 비록 범규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이익조정행위는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리인이론(Agency Theory)은 본인(한 사람 또는 2인 이상)과 대리인간의 계약으로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에게 의사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Jensen and Mechling, 1976). 대리인이론에서 볼 때 경영자는 투자자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기 때문에 지분소유자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손실에 관련된 위험은 회피하려고 할 것이다. 이로 인해 경영자와 투자자 사이에 딜레마가 존재하게 된다. 경영자는 지분소유자(주인)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주인은 대리인에게 자신들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할 것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Fama(1980)에 의하면 기업은 대리

인과 지분소유자 사이의 계약을 기초로 하는데, 계약당사자인 각각은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이익(self-interest)에 의해서만 동기부여 된다고 가정하였다.

대리인이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상당부분 기업의 경영자(대리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에 대해서만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대해 Perrow 등(1986)은 대리인이론이 너무 편협적이고 대리인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연구에서는 대리인이론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대리인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계실무에 있어서 회계담당자들이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는 최고경영자나 상사의 지시와 같은 압력이 존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최고경영자나 상사의 압력에 회계담당자가 순응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관 특히 윤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계담당자들이 이익조정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봉착했을 때 회사나 경영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 또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고려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하지만 회계담당자는 경영자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경영자의 편에서 회계업무를 처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GAPP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지분소유자 또는 투자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려하는 의도가 있게 되면 비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최고경영자의 윤리관 및 철학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경영자에게 재무적 조언을 하는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가적 자질에 따른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여러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정책결정자들의 개인차 즉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속성이 파악된다면 그 속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이익조정 행위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은 분기별 결산을 하면서 재무제표를 공시하기 전에 조직내에서 경영성과인 이익수치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경영자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다. 또한 회계담당자들은 경영성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경영자에게 여러 가지 조언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 때문에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에서 경영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개인적인 특성이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제2절 연구목적과 범위

투명재무보고위원회(1987)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위배되지 않은 이익조정행위도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으로 또는 전문가협회에서 효과적인 기준이나 법령을 마련한다면 투자자의 미래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Merchant and Rockness(1992)의 연구는 의심스러운 이익조정행위로 인해 기업의 투자자가 큰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익조정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연방정부에서는 사베인스-옥스리법(Sarbanes-Oxley Act, 2002)을 새로이 제정하여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무제표를 보증하도록 하였으며 형사상책임을 부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는 감사기준 NO. 99(SAS No.99: Statement of Auditing Standards No. 99)와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 허위보고와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였다.

이익조정이란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Schipper, 1989) 할 수 있는데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류해보면, 첫째 이익조정의 존재여부



(Jones, 1991:193-228), 둘째 이익조정 발견(Dechow, Sloan and Sweeney, 1995: 193-225), 셋째 이익조정을 하는 목적(Healy and Wahlen, 1999; Hribar and Collins, 2002: 105-134)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이익조정 연구는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졌다고보다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분야몰입이나 회계담당자 개인의 윤리적 태도가 이익조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지는 못하였다는 단점이 있다.

개인의 특성과 이익조정문제를 다룬 연구는 소수이지만 전문분야몰입과 개인의 윤리적 태도가 이익조정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Merchant and Rockness, 1992). 국내 연구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도덕발달수준과 통제의 원천이 회계담당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정재율(2001)의 연구와 회계전문직(공인회계사)의 윤리적 가치관이 이익조정행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구배 등(2004)의 연구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사결정과 윤리와 관련지어진 연구 특히 이익조정 관점에서 전문분야몰입 및 윤리관계를 다룬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개인 수준에 초점을 맞춘 이익조정에 관한 선행연구(Merchant and Rockness, 1994; 정재율, 2001; 김구배·김미화·기종진, 2001)들은 윤리성을 강조한 나머지 회계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한 편이다. 외부감사인들은 결산기에 집중된 감사업무로 인해 외부감사인이 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갖고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현재 우리의 감사현실은 기업의 회계부정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고 한다(권선국·조성표·김도형, 2005: p.157). 이는 대부분의 분식회계나 이익조정이 기업내부의 정보생산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볼 때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개인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 간의 관계를 밝히고, 정책적으로 회계윤리성을 높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윤리관(이상주의/상대주의)이 이익조정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목적들이 달성된다면 향후 연구자들에게 이익조정 인식에 있어서 윤리적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회계윤리교육의 필요성을 제고하고 회계윤리교육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회계의 윤리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개인적 자질 및 윤리성을 검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윤리성을 높이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회계부정사건으로 인하여 회계실무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와 회계윤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회계담당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이 이익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 제3절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의 방법은 기존문헌에 의해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여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설문조사에 의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문헌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논문, 전문서적, 정기간행물, 연구보고서 및 통계자료 등의 국내외 문헌을 중심으로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설정된 연구목적을 실증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통계적 분석을 이용하기 전에 각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통하여 설문지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기업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별(상장기업과 외부감사대상기업) 회계담당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연결을 통해 이루어 졌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및 구성을 설명하였다.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이러한 연구에서의 윤리관의 접목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선행연구로서 이익조정과 관련하여 개념, 유형, 목적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개인적 자질 등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중 개인적 특성인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또한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밝혀 연구모형을 구성하는데 이론적 체계를 갖췄다. 전문분야몰입과 관련해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전문분야몰입의 중요성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윤리성과 관련해서는 회계담당자의 회계 지식만이 아니라 개인적 자질로서의 윤리성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개인이 갖고 있는 윤리관과 이익조정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설계에서는 이익조정 인식,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의 각 개념적 정의를 통해 개념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하였다. 제4장 가설 검증에서는 SPSS 16.0 프로그램을 활용한 개념 간의 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각 개념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하였다. 제5장에서는 결론 부분으로써 연구결과에 따른 요약과 정책적 제의,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였다.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제1절 이익조정

#### 1. 이익조정의 개념 및 방법

##### 1) 이익조정의 개념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은 연구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이익조정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는데, 한 가지는 투자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을 조정하여 실제로 자원의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연구개발비의 수준을 변경하거나 광고선전비를 조정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연말에 매출 시기를 조정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실질적인 자원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하여 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영자는 재고자산의 단가산정방법이나 감가상각방법의 선택과 변경을 통하여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불량채권의 대손상각비 추정이나 유형자산의 잔존가액이나 내용연수 추정을 통해서도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다. Schipper(1989)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익조정을 GAAP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윤리적인가 비윤리적인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하였다.

Healy와 Wahlen(1999)은 이익조정을 경영자가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

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들은 회계추정을 변경시키거나 회계처리방법의 선택을 조정하거나 비용의 지출이나 수익의 인식시점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익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Schipper(1989)와는 달리 이익조정이 위법행위가 아닐지라도 비윤리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2) 이익조정의 방법

경영자가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첫째, 회계변경과 둘째, 발생주의 항목의 이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의 GAAP 하에서는 동일한 회계 현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허용된다. 경영자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 조정은 변경 내용과 변경의 타당성 및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하므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노출이 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 발생주의 항목을 통한 이익조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민수정, 2001).

### (1) 회계변경을 통한 이익조정

GAAP을 위반하지 않고 회계원칙, 회계추정, 보고실체를 변경하는 것을 회계변경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회계 변경이 발생하기 전의 모든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의 허용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변경의 내용도 역시 그 범주 안에 있어야 회계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처리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에 정하고 있다.

회계변경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경영자 측에서 이루어지므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제적 실체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도 있으므로 기업에 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

그러나 회계변경을 시행하게 된다면 과거의 재무제표와의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이것이 악용될 경우 경제적 실체를 보다 잘 반영하기보다는 특정한 회계연도의 경영성과를 왜곡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은 변경 내용을 주석사항으로 나타내도록 하고 있고 회계감사기준에서는 회계변경의 정당성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 변경의 실태에 관한 조사(원정연·이명근, 1999)에 따르면 회계변경에 많이 사용되는 유형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감가상각내용연수의 연장, 재고자산 평가 방법의 변경, 수익인식 기준의 변경, 외화 환산손실의 이연인식 등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회계 변경은 대부분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다. 이것이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 정당한 회계변경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의 경제적 실체를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 (2) 발생주의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 원칙의 변경은 감사보고서에 주석으로 공시해야 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그래서 발생주의 항목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De Fond와 Jimbalvo(1994)는 연차보고서에 부채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된 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부채계약 위반 직전연도의 운전자본발생액이 양(+)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부채계약 위반 직전연도의 운전자본발생액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행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국내연구의 경우에도 발생주의항목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하려는 경

향이 있음이 밝혀졌다. 예를들어, 한봉희(1998)는 회계 이익을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주의적 조정으로 구분하고 발생주의적 조정은 다시 유동 발생과 비유동 발생으로 구분하여 과거기간 동안의 회계이익의 감소 추이가 영업현금흐름과 발생액에서 균등하게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비유동발생과 특별손익을 고의적으로 부풀리면서 이익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 이익조정의 목적

이익조정의 목적은 이익유연화 가설, 경영자보상계약가설, 정치적 비용 가설, 부채비율가설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 1) 이익유연화 가설

이익유연화(income smoothing)란 보고이익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려는 경영자의 행동을 의미한다. 즉 경영자가 목표로 하는 이익과 실제 이익의 차이가 크지 않도록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경영자가 이익을 유연화 시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경영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이다. Gordon(1954)은 경영자의 지위 보전이나 보상은 주주의 만족도에 의해 결정되고, 주주의 만족도는 기업 이익의 평균 성장률이 증가하고 안정됨에 따라 증대되므로 경영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유연화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둘째, 법인세를 절감하고자 이익조정을 한다. 법인세에 대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나, 손실에 대한 이연공제(이월결손공제) 기간이 제약되어 있는 경우 이익평준화를 통해 법인세의 총 지출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 누진세율이나 이연공제 제약이 없는 경우라도 이익을 조정하며 법인세 지출 시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수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평균 등과 비교하여 법인세를 많이 낸 경우에 이득이 거의 없지만 법인세의 소액 납

부와 영업손실로 인한 무납부 시에는 세무조사의 위험이나 증액납부의 압력이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익유연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은 이득이 될 수 있다.

셋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 관계개선을 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자, 채권자, 종업원 등의 이해관계자들은 보고이익이 변동하는 경우보다 안정적인 기업에 더 신뢰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넷째, 이익유연화는 이익수치의 변동을 통해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시장수익률과 개별기업의 수익률 간의 공분산을 줄임으로써 개별증권의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켜 주식가치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idleman, 1973).

마지막으로 미래 이익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이 높아진다. 이익유연화는 기업의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경영자들이 유연화 된 이익 수치를 통해 그들의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예상을 전달할 수 있고, 경영자와 기업의 외부 정보 이용자들 사이에 정보력 차이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된다(Barnea, Ronen, and Sadan, 1976).

## 2) 경영자보상계약가설(보너스계약가설)

경영자 보상계약은 경영자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가치의 증가에 대한 경영자의 노력을 직접 관찰하거나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자 보상계약은 회계이익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명시적인 보상계약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 중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는 것은 Healy(1985)의 연구이다. Healy(1985)의 조사에 의하면 경영자 보상계약의 약 1/3은 회계이익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경영자의 보상이 회계이익에 근거하여 지급된다면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sup>1)</sup>.



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보너스계획 상의 회계이익에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는 경우 경영자는 회계이익이 상한을 초과하거나 하한에 미달하게 되면 보고이익을 이연시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Guidry 등(1999)은 다국적 기업의 사업부 경영자들이 보너스계획 상의 이익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없거나 보너스계획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대의 보너스를 이미 달성한 경우 이익을 이연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Holthausen 등(1995)과 Gaver 등(1995)의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의 하한에 미달하는 경영자들이 이익을 하향조정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경영자의 명성이나 지위보전도 궁극적으로 경영성과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계이익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측정치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경영자들은 자신의 명성이나 지위보전을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예컨대 De Angelo(1988)는 위임장경쟁(proxy contest) 기간 동안 현직의 경영자들이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회계상의 재량을 행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Dechow와 Sloan(1991)은 경영자가 임기 마지막 연도에 보고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감소시킨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sup>2)</sup>. 이와 유사하게 Pourciau(1993)와 정규언(1992)은 경영자가 변경된 기업의 신임경영자는 취임 연도에 이익을 하향조정하고 그 이후에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 3) 정치적 비용 가설

정치적 비용 가설이란 공공의 관심이나 정부 조사의 대상기업은 정부나 공

- 
- 1) 명시적인 보상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많은 기업들은 보상과 이익을 연계시키는 암묵적인 보상계약을 지니고 있다 [Antle and Smith(1985), 황인태(1995), 김태수(1998) 등을 참조]. 따라서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회계이익에 근거한 보상계약은 경영자의 이익관리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2)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 즉 경영자가 이익을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을 조정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연구개발계획의 변화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의 지출수준이 변화했을 수도 있다.

공으로부터의 조치를 받으며 이러한 사실이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것이다(Watt and Zimmerman, 1978). 정치적 비용의 대응변수로는 기업규모, 이익의 변동성, 집중률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자주 이용되는 변수는 기업 규모이다. 즉,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정부나 공공의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업의 이익 상승이 더 큰 관심과 규제를 가져온다고 본다. 따라서 기업은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보고 이익의 변동 폭을 줄이거나 이익의 급격한 증가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방향으로 이익을 조정하는 것이다.

#### 4) 부채비율가설

채권자들은 부채계약(차입계약)을 체결할 때 부채비율, 유동비율, 배당지급 등에 대한 재무제한조항을 명시함으로써 경영자의 행동을 제약한다. 이들 재무제한조항의 보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고이익수준에 대해서는 제약이 완화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보고이익수준에 대해서는 제약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채계약의 위반에 근접해 있거나 혹은 계약불이행이 임박한 기업의 경영자들은 계약위반의 가능성과 재계약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할 유인을 갖게 된다.

Dhaliwal(1980)의 연구는 부채계약이 회계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구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는 석유가스탐사비용에 대하여 전무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재무레버리지(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대응변수)가 성공원가법을 사용하는 기업들보다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방법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artov(1993)는 경영자가 고정자산과 투자자산 처분손익의 시기를 조정하여 이익을 조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경영자는 고정자산이나 투자자산의 처분시기를 어느 정도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기간이익의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산처분손익의 시기



를 조절하여 이익을 평준화시키는 노력을 하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채무이행조항(debt covenants)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e Fond와 Jambalvo(1994)의 연구와 Sweeney(1994)의 연구에서는 실제로 부채계약을 위반한 기업들을 조사하였으나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De Fond와 Jambalvo(1994)는 표본기업들이 계약위반 1년 전에 이익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고 이러한 현상을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이익을 조정한다는 증거로 해석하였다. 반면에 Sweeney(1994)는 부채계약을 위반한 22개 기업 중에서 5개 기업이 회계변경을 통하여 1분기 혹은 그 이상 동안 부채계약의 위반을 지연시키는데 성공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증거는 무작위 표본의 경우 부채계약의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의 빈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에 대한 대응변수로서 부채비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나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이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증거를 많이 발견하지는 못하였다. 실제로 최관과 정병욱(1998)은 1990-1996년 동안 부도가 발생한 55개 상장기업의 회계선택을 조사한 결과 이들 부도발생 기업은 부도발생 직전에 당기순이익이 급격하게 하락했지만 부도방지를 위하여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기업이 부채계약의 위반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증거는 상반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 **3.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 **1) 이익조정에 관한 경험주의적 연구**

Sloan(1996)은 1961년부터 1991년까지 40,676개의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조정이 자본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이익

조정이 기업의 주식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다.

Subramanyam(1996)은 1973년부터 1993년까지 21,135개의 표본을 이용하여 Sloan(1996)의 연구결과가 이익유연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자본시장은 이익조정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Xie(2001)는 1971년부터 1992년까지 56,692개의 관측 자료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Jones(1991)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그는 Jones(1991)의 모형은 효과가 없는 재량적 발생액을 평가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결과는 자본시장은 이익조정을 인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자본시장은 재무제표에 실제보다 높은 가격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 또한 Jones(1991)의 모형은 이익을 일반적인 것과 임의의 재량적 발생부분으로 구분하는데 실패했다고 하였다.

Collins와 Hribar(2000)와 Balsam 등(2002)은 Sloan(1996)의 조사를 4분기 정보를 사용하여 확장하였다. Collins와 Hribar(2000)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분기별 이익기록인 41,237개의 표본을 사용하여, 자본시장이 효과적으로 이익에 관한 정보를 주가에 반영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들의 발견은 시장이 주가에서 이익조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Sloan(1996)과 유사했다. 그들은 이익조정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실패는 이전 이익의 추세로 추적될 수 있는데 즉 주가가 이익발효에 반응하여 초기가격의 방향으로 계속 표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e Angelo(1986)는 경영자 매수(management buyout)에 앞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영자 매수란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이 일하는 기업의 주식을 모두 매입하여 기업을 사(私)기업으로 만드는 것(going private)을 말한다<sup>3)</sup>. 주식매수에 앞서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왜냐하면 기업이이익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사용이 되고, 또한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이익을 하향조정하면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을 좀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3) 경영자는 주식을 매입한 후 기업을 잘 운영하여 비싼 값으로 되팔거나, 기업의 자산이나 공장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매각차익을 얻게 된다.

De Angelo(1986)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경영자 매수가 발생한 64개 기업에 대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 여부는 총발생액의 차이를 재량적 발생액으로 보고 경영자 매수 전 재량적 발생액이 하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 매수 전에 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정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Moese(1987)는 이익유연화 현상의 존재와 이익유연화를 행하는 기업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익유연화 정도의 측정은 먼저 회계변경으로 인하여 변화된 보고이익의 변화분을 뺀 실제이익에서 기대이익을 차감한 절대값으로 계산하였다. 그리고 보고된 당기순이익에서 기대이익을 차감한 절대치를 구하고 앞에서 계산된 값에서 이 절대치를 차감한 값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다. 분석은 임의적 회계변경을 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212개의 기업 중에서 137개 기업이 이익유연화를 행하고 있으며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보너스 계약이 있는 기업일수록, 또한 보고이익과 기대이익의 차이가 클수록 이익유연화가 더 크게 나타남을 제시 하였다.

박춘래와 김성민(1996)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경영자들이 법인세율 인하 직전년도(즉, 1993년)에 발생항목을 이용한 이익이연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이익조정가설, 기업규모가설, 부채계약가설, 경영자지분가설, 수익이연가설 등 총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재량적발생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예측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와 상관없이 당기순이익의 상승폭이 클 경우에만 법인세율인하에 반응하여 보고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비용항목보다도 수익항목을 많이 이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분석결과를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법인세율 인하 전·후 연도에 발생을 통하여는 유의적인 반응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관과 김문철(1997)은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였다. 신규상장기업은 기존상장기업에 비하여 기업의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추정함에 있어서 회계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신규상

장기기업의 경영자는 발행가를 유리하게 설정할 목적으로 재량적발생액(DA: discretionary accruals)을 통하여 상장 전 기간의 이익을 높이려는 충분한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재량적발생액(DA)의 추정은 수정된 Jones모형(193-228)을 이용하여 산업-연도별 횡단면 분석으로 추정하였다. 즉 재량적발생액(DA)은 총발생액에서 비재량적발생액(NDA)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발생액을 통한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상장 전 기간이 아닌 상장당해년도 및 상장직후 연도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발생액(DA)을 추정하는 대체적인 연구방법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발행가격 산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상장 전 기간에 이익조정을 행할 것이라는 예측은 지지되지 않았다.

윤순석(1998)은 우리나라 상장 제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1994년과 1995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익조정 현상이 얼마나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증하였다. 영업활동의 성과에 따라 이익조정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정도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포트폴리오별로 이익조정에 있어서 체계적 차이가 발견되는가를 검증한 연구이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첫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의 평균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았다. 둘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영업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셋째는 각 포트폴리오별로 부호변화(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데 당기순이익은 양수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정도를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영업현금흐름과 금융비용 및 총발생액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또 램덤워크모형을 이용하여 재량적발생액을 추정하여 이익조정 현상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통하여 이익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당기순이익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차이를 분석한 경우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경우나 부호의 변화를 분석한 경우 모두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이 당기순이익을 양수로 변환시키는 이익조정을 구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집단인데 실증분석결과도 이 가설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부 집단의 경우에는 이익조정 의 빈도는 다소 떨어지지만 이익조정의 크기는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의하면 영업현금흐름과 금융비용 간의 상관관계는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총발생액과 영업현금흐름과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에 의 하더라도 영업현금흐름이 음수인 집단에서 특히 이익조정 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백원선과 최관(1999)은 법인세 최소화 동기와 이익조정의 관계를 보다 일반 화시켜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채계약 위반이나 정치적 표적이 됨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의 특성과 관련 하여 동기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달 라진다. 특히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기업들이 이를 감 수하면서 기업특성 또는 계약관련 동기만을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할 것인 가 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계약관련 동기에 따른 이익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법인세 추가부담이라는 비용을 동시 에 평가하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이익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법인세 추가 부담이 경영자 보상증가, 부채계약 위반 가능성 또는 정치적 표적 가능 성의 회피 등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보다 오히려 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현금흐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부 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이익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부담과 기업특성변수, 기타 계약변수들을 동시에 고려한 경우에도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 부담은 음(-) 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



업이 이익을 낮추어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이익을 조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익조정은 수정된 Jones모형(1991)과 Rangan(1998)이 사용한 모형을 각각 시계열적인 측면과 횡단면적 측면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유상증자 기업들은 산업평균보다도 순이익이 낮은 기업들이었으며 유상증자 1년 전부터 2년 후까지 순이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유상증자 기업들의 현금흐름도 산업평균보다 낮았으며 유상증자를 실시한 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하락하였다. 따라서 부진한 경영성과와 특히 불량한 현금흐름 때문에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실시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였다. 순이익과 현금흐름의 차이인 발생액은 유동발생액이나 총발생액의 차이 모두 유상증자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어 이 시점에서 이익의 상향조정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제2절 전문분야몰입

### 1. 전문분야몰입의 개념

Kerr와 Schriesheim(1974)에 따르면 전문가는 장기간의 교육에 의해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분야에 대해 몰입하며, 동일한 전문분야의 동료들에 대해 동일시하고, 동료들을 자신의 업무수행 및 성과에 대한 참조준거로 설정하며, 전문분야의 업무수행 시 최대한의 자율성을 요구하며, 업무수행이 개인적 이해에 좌우되지 않는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

<표 2-1> 전문가의 특성

전문성(expertise)	장기간의 공식적 교육 및 훈련에 의한 특정 분야의 전문기술과 능력
몰입(commitment)	자신의 일과 전문분야에 대한 소명의식
동일시(identification)	자신의 전문직업과 동료들에 대한 동일시
참조준거(reference)	동료 전문가를 특정성과의 평가준거로 설정
자율성(autonomy)	업무수행을 위한 수단과 절차를 선택하는 자유
윤리(ethics)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적 이해나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감

Kerr와 Schriesheim(1977)이 제시한 <표 2-1>의 전문가의 특성들은 Hall(1968)이 제한한 전문가주의(professionalism)에서 유래된 것이다, 전문가주의는 전문가들의 전문분야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Hall은 전문가주의의 다섯 차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전문가는 자신의 주요 참조준거로 전문가조직(professional organization)을 사용한다. 전문가조직은 공식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으며, 전문직업의 가치, 신념 및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전문가조직에 참가함으로써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자신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으며 동료의식(colleague consciousness)을 가진다.

둘째,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가 일반대중에 봉사한다는 신념을 가진다. 즉,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직업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며, 유익한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자기조절(self-regulation)에 대한 신념으로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 때문에 외부인이 아닌 자신을 포함한 동일한 전문분야의 동료 전문가들만이 자신의 작업절차와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전문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일에 헌신한다. 전문가에게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다른 목적에 대한 수단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것은 무엇보다 성취감과 같은 내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이며, 금전적인 외적보상은 이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능력의 지속적인 개발과 적용에 평생 동안 헌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자율성에 대한 요구로서, 자신의 일에 대한 의사결정이 전문분야의 기준이나 가치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하며, 외부의 압력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반영한다. 특히 조직 측면에서의 외부압력(예: 경영층의 요구)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대립될 소지가 많다.

Hall(1968)은 각 차원별로 10문항으로 구성된 전문가주의 척도를 개발하였고 다양한 전문직업군(회계사, 주식중개인, 의사, 간호사, 교사, 법률가, 공학자 등)에 속한 328명을 대상으로 이 척도를 사용하여 태도적 측면에서의 전문가주의를 측정하였다.

대규모 조직에 고용된 전문가들은 고용된 조직에 대한 몰입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이 주장되어 왔다(Miller, 1998). 이러한 주장은 여러 연구들에서 전문가의 공통 속성이라 볼 수 있는 높은 학력수준이 조직몰입과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결과로부터 간접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따라서 전문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전문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몰입과 그들이 고용된 조직에 대한 몰입간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다(Wallace, 1993).

전문분야몰입은 전문가주의와 개념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측정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 전문가주의나 전문분야몰입은 모두 전문가의 전문분야에 대한 애착이나 몰입수준을 나타내는 태도이지만, 실제 사용되는 측정척도가 상이하다. 전문가주의는 Hall(1968)에서 유래된 5가지 차원을 반영한 문항들로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나, 전문분야몰입은 Porter 등(1974)의 정의에 따라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동일시와 관여의 강도'로 정의되며(Reichers, 1985) 측정척도도 조직몰입 문항에서 '조직'이란 단어를 '전문분야'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전문분야몰입은 조직몰입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여 첫째,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수용 둘째, 자발적으로 조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셋째,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한다(Reichers, 1985).



## 2. 전문분야몰입에 대한 선행연구

Aranya 등(1981: 271-BD)은 공인회계사의 전문분야몰입 수준이 회사의 지위(사원, 간부, 감독관)와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캐나다의 2,590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는 1) 조직몰입의 수준 2) 전문가의 조직 내 경쟁정도 3) 회계사의 전문분야몰입 결정요소인 소득에 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공인회계사의 회사 내 지위와 전문분야몰입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가의 조직 내 경쟁과는 관련이 없는 반면, 소득에 관한 만족도는 전문분야몰입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ub 등(1993)은 207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윤리적 태도가 회계사의 전문분야몰입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ranya 등(1981)의 논문을 확장하여 연구하였다. 그들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척도에 관한 개인의 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Forsyth(1992)에 의해 발전된 EPQ(Ethical Position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Shaub 등(1993)은 이 두 가지 윤리적 결정 관계가 회계사 개인의 전문분야몰입 수준과 윤리적 딜레마(상황판단)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그들은 또한 전문분야몰입과 조직몰입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공인회계사는 이 검증 시나리오에 포함된 윤리적 이슈를 대략 절반 정도는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개인의 전문분야몰입이 윤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어서 그들은 전문분야몰입과 조직몰입 사이에 정(+의 관계는 존재하며 이것은 전문분야몰입과 윤리적 태도 사이에서 불일치(충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Greenfield Jr.(2005)는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수준이 이익추구 성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그의 가설은 지지되었다.

Wallace(1993)가 전문분야몰입과 조직몰입에 관한 25개의 연구 자료를 메타 분석(meta-analysis)한 결과에 따르면, Wiener와 Vardi(1980)의 연구 이외에는 모두 두 몰입 간에 유의미한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특정 직업이 더 전문화되어 있을수록 더 큰 상관계수를 보였다.

한편 Cooper-Hakim와 Viswesvaran(2005)은 997개의 연구자료들을 이용하여 전문분야몰입을 포함한 직무몰입과 종속변수와 관련된 직무특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메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문분야몰입수준과 직무성과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높은 수준의 전문분야몰입과 개인의 직무성과는 서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Jeffrey와 Weatherholt(1996)는 102명의 공인회계사와 85명의 기업의 회계사를 대상으로 전문분야몰입수준과 윤리적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이 두 그룹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들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그들은 또한 공기업의 전문분야몰입은 지위에 따라 달라진 반면, 윤리적 태도는 그렇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낮은 수준의 전문분야몰입은 높은 수준의 윤리적 태도를 이끄는 반면 높은 전문분야몰입은 적당한 수준의 윤리적 태도를 만든다고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Kaplan 등(2001) 규모가 큰 국제적인 회계법인 73명의 간부감사관(senior auditor)을 대상으로 감사의뢰고객의 구체적이고 미래고용과 관련시켜 특정상황이 존재할 때 동료감사관의 감사보고의도(의지, 목적)를 검토하였다. 연구자들은 감사보고 의도가 (1) 행동의 진지함에 대한 지각 (2) 보고에 관한 책임감 (3) 전문분야몰입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과 보고의도와 관련하여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선배동료감사관들이 내부고발자 존재와 관련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마지못해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회계감사관의 전문분야몰입 수준의 증가는 동료감사관들의 보고 기회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제3절 윤리관과 이익조정

#### 1. 윤리관의 개념 및 유형

윤리적관을 유형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주로 서양의 윤리적 철학에 근거하여 의무론(deontology), 목적론(teleology)과 회의주의(skepticism)로 분류된다. Schlenker와 Forsyth(1977)는 이러한 세 가지 철학적 개념으로 상대주의(relativism)와 이상주의(idealism)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상대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들은 회의주의자들처럼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반면에 상대주의가 약한 사람들은 의무론자나 목적론자들처럼 자연법이 존재하며, 이 자연법이 행동을 평가하는 적당한 도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바람직한 행동은 항상 자연법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이상주의 윤리관이 약한 사람들은 실용주의 측면을 강조하여 행동을 판단하는 적절한 기준은 부분적으로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로부터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Forsyth(1980)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정신적 태도 그리고 가치는 통합된 개념체계 또는 개인적 도덕철학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여 개인의 윤리관을 측정하는 일련의 척도인 EPQ(Ethical Position Questionnaire)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두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했다. 높은 수준의 상대주의자는 개인의 윤리적 신념에 관한 집단의 규칙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형적으로 특정 개인을 포함한 상황이 의사결정의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낮은 수준의 상대주의자는 개인의 도덕과 관련된 원칙과 법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법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주

의적인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방지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 이상주의적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항상 피해를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며,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도 의사결정은 보다 나은 선(good)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한다.

개인의 가치와 그 가치의 원천에 대한 지식은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잠재적인 기여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런 가치와 신념에 동기부여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Barnett 등(1998)은 381명의 미국마케팅협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대주의자와 이상주의자의 차이점에 대하여 마케팅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 경영 의사결정에 있어서 윤리적인 판단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이상주의자들은 경영 의사결정을 비윤리적이라 생각하는 반면, 상대주의자들은 윤리적이라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개인의 도덕적 철학은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EPQ는 개인의 도덕적 철학을 평가하는데 있어 타당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Douglas와 Wier(2000)는 경영자의 윤리적 태도가 예산슬랙(budget slack)<sup>4)</sup>의 창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 220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연구자들은 예산슬랙은 계획된 성과목표와 실제성과 역량의 차이라고 규정하였다. 연구결과 특정그룹 조사를 통하여 상대주의 수준이 더 높은 그룹은 더 많은 예산슬랙을 실행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반대로 이상주의 수준이 더 높은 그룹은 예산슬랙 정도가 낮았다.

Douglas와 Wier(2005)는 220명의 미국경영자와 142명의 중국 MBA학생을 대상으로 EPQ를 사용하여 예산슬랙 관점에서 문화적 차이가 개인의 윤리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윤리적 태도에 있어 중요한 문화적

4) 예산슬랙: 각 부서 및 개인이 예산(계획 및 목표설정)을 수립할 때, 비용은 가능하면 과대계상하여 비용절감목표를 극대화 시키고, 수익(판매량, 생산량)은 적게 계상하여 매출목표달성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통해 각 부서 및 개인에게 부여된 예산목표를 쉽게 달성하여 높은 성과평가점수를 받으려는 현상

차이점이 두 그룹 사이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경영자들인 경우 윤리관이 예산슬랙과 관계가 있었지만 중국경영자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을 제시 하였다.

Douglas 등(2001: 101-121)은 304명의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EPQ를 이용하여 회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가치가 윤리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그들은 조직문화와 각각의 개인적인 가치 사이에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윤리적 성향은 윤리적 판단력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 주었다.

Eastman 등(2001: 718-720)은 263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의사의 윤리적 이데올로기와 치료행위 의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의사는 상대주의적이기 보다는 이상주의적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이익행위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이후 연구인 Ziegenfuss(2001)는 사기조사전문가협회(ACFF; Association of Certified Fraud Examiners)와 내부감사협회(IIA; Institute of Internal Auditors)에서 114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IIA구성원과 ACFF비구성원의 의사결정과정에 윤리관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구성원과 비구성원 사이에 차이점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차이점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윤리규정이 윤리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Chonko 등(2003)은 미국소매업협회(U.S. Direct Selling Association) 소속 286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급격한 환경변화가 이상주의와 상대주의자들의 차이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윤리규정의 유용성과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그들은 이상주의자들이 상대주의자들보다 윤리규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지한다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그의 가설은 지지되었고, 환경적 변화가 증가할수록 이상주의자는 상대주의자보다 윤리규정에 더 의지하며, 윤리적 행동은 개인이 윤리규정에 좀 더 익숙해질수록 강화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리의 절대적인 규정이 존재할 때까지 경영의사결정은 여전히 개인의 윤리적인 신념에 달려있으며, 결정의 옳고 그름 또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전반적으로 회계에서의 윤리학 연구는 윤리적 행동을 측정하는 서로 다른 도구(Ponemon and Glazer, 1990; Douglas and Wier, 2000; Thornton, 2000)<sup>5)</sup>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모형(Rest, 1983; Forsyth, 1992)을 가지고 분석해 왔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어떤 모형이 윤리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다. 회계에서의 윤리학 연구는 경영 환경에서 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 생기는 이슈를 검토했으나 그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었다(Barnett and Vaicys, 2000; Knotts, Lopez and Mesak, 2000). 또한 이익조정분야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이익조정을 수반한 윤리학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에 그치고 있다.

## 2. 윤리관과 이익조정에 대한 선행연구

Bruns와 Merchant(1990)는 13가지의 특정한 이익조정 상황을 설정하여 649명의 경영자를 조사했다. 연구의 목적은 시나리오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야 할 때 경영자들 사이에 의견의 일치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결과 경영자 사이에 의견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일부 경영자는 윤리적인 이슈를 포함한 시나리오를 제시했지만 다른 경영자들은 그렇지 않았다.

Merchant와 Rockness(1994)는 37명의 경영자, 90명의 내부회계감사자, 그리고 96개 지역을 표본으로 13개의 경영상황을 테스트해서 확장했다. 이 논문의 연구결과는 일부지역은 일치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불일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윤리 질문서의 사용이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경영자의 자세를 명확하게 알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lias(2002)는 윤리적인 관념과 이익조정행위의 도덕성에 대한 개인의 판단

5) Ponemon, L. and Glazer, A.(1990). Accounting Education and Ethical Development: The Influences of Liberal Learning on Students and Alumni in Accounting Practic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5-208.; Douglas, P. and Wier, B.(2005). Integrating ethical dimensions into a model of budgetary slack-cre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28, pp.267-278.; Thornton, B.(2000). The Moon Hoax: Debates About Ethics in 1835 New York Newspaper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2), pp.89 - 100.

을 알아보기 위해 763명의 회계관계자, 교수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연구결과는 상대주의자의 판단이 이상주의자의 것보다 더 관대한 윤리적 행동을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Elias(2002)는 오직 행동에 대해 지각만을 했을 뿐 윤리적인 행동을 예언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Clikeman와 Henning(2000)은 56명의 회계학과 학생들과 77명의 다른 경영학과 학생들을 표본으로 하여 회계교육은 회계학생들로 하여금 재무제표의 사용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는 재무제표 사용자는 경영에 의해 오도된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대학 4학년이 2학년보다 더 많이 이익조정을 배척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물론 회계학과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비교해서 이익조정을 무시하려 하지 않았다. Greenfield Jr.(2005)는 미국의 북중미 두 대학에서 145명의 회계학과 학생과 230명의 경영학과 학생들을 경영자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이익조정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한 개인의 역량 차이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은 개인의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연구에서 정재을(2001)은 경영학부 대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윤리수준 변수인 도덕적 발달수준과 성격변수인 통제의 원천이 윤리적 딜레마가 회계담당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덕적 발달수준과 통제의 원천은 회계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도덕적 발달수준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비윤리적인 측면이 큰 상황에서 더 명확하게 나타나고 통제원천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상사의 압력과 같이 외생요소의 압력이 강한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대학과 기업사회에서는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 윤리학의 이해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윤리적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첫째는 교실에서 윤리학을 가르치는 것, 둘째는 학생의 전문분야에서 몰입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사회는 경영환경에 있는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전문분야몰입을 포함하는 윤리학 연구들은 연구 동향이 한 단계 진전된 것임을 강조한다.

윤리학 연구가 많은 시선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자들의 결론은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몇몇의 연구자들은 윤리학을 교실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관점을 지지한다(Stark, Lowther, Hagerty and Orczyk, 1986; Ahadiat and Mackie, 1993; Huss and Patterson, 1993)<sup>6)</sup>. 반면에 다른 연구자들은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Poneman, 1993). 대학과 기업사회에서 여타의 관심영역은 이익조정에 관한 것이다.

이익조정연구는 이익조정의 발견과 이익을 조작하려는 경영자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반면 윤리학 연구는 윤리학교육, 전문분야몰입 그리고 윤리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는 두 가지 부분을 합쳐서 연구되어왔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요인(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을 포함함으로써 Greenfield Jr.(2005)의 연구를 재검증 하고자 한다. 특히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에 개인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Greenfield Jr.(2005)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이익변수를 제거하였다. 왜냐하면 회계담당자들은 스스로 이익조정결정을 한다기 보다는 경영자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익조정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도덕적 발달과 통제의 원천이 회계담당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조사를 하였으나 본 연구는 EPQ를 이용하여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을 측정하였다.

---

6) Stark, J., Lowther, M., Hagerty, B., & Orczyk, C.(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pre-service professional program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57(3), 231-258.; Ahadiat, N., & Mackie, J. J. (1993). Ethics education in accounting: An investigation of the importance of ethics as a factor in the recruiting decisions of public accounting firms.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11(2), 243-257.; Huss, H. F. and Patterson, D. M.(1993). Ethics in accounting: values education without indoctrin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March, pp. 235 - 245.



## 제3장 연구설계

제3장에서는 연구모형,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을 다룬다. 이익조정 인식과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에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연구방법에서는 설문지설계 및 자료처리내용과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한다.

### 제1절 연구모형

해외 이익조정에 관한 실험연구 추세는 개인의 윤리관과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전문분야몰입과 연계시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아주 미미한 실정이다. 이익조정행동의 결정요소는 특정 상황에서 회계담당자의 심리적 상태를 가정, 학교, 사회화과정에서 형성된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행동이라 할 수 있으므로 문화적환경과 경제구조에 따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선행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기업환경에서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전부터 이익조정 실험연구는 개인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독립변수는 개인의 윤리관에 따른 이상주의와 상대주의 그리고 전문가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전문분야몰입수준 등이다. Forsyth(1992)의 연구는 개인의 윤리적 이데올로기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이익조정행동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haub 등(1993)의 연구는 윤리적 민감성을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으로 확장하여 연구한 결과 이익조정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iegenfuss(2001)의 연구는 직업에서 지켜지고 있는 윤리관에 대한 규정이 그 윤리적인 행위과정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Cooper-Hakim과 Viswesvaran(2005)의 연구는 조직몰입과 전문분야몰입 사이의 관계분석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분야몰입은 높은 전문분야 행위수준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면 이익조정 행위는 개인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 요인에 의해서도 대부분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경영자 또는 경영자로 가정했을 때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이익조정행위를 연구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회계담당자를 표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익조정행위를 직접 측정하기에는 알맞지 않았다. 그런 이유에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이익조정행위가 아닌 이익조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인식 즉, 이익조정 인식을 설정하여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여 본인의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 인식이라는 측면을 통해 그 영향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제2절 가설설정

### 1. 회계담당자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

경험이 있든 없든 전문분야몰입수준이 높은 사람은 전문가의 기준에 따라 행동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감사인이 행하는 어떤 의사결정도 거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을 따를 것이고, 그에 따라 감사인들의 결정이 투자자(지분소유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 것이다. 예를 들면, 만약 감사인들이 독립성기준을 준수하면 부외부채를 감추려는 회사의 어떤 시도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은 Forsyth(1992)가 주장한 개인 윤리관에 있어 이상주의 윤리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즉 행위자는 특정상황에 대해 기술된 규칙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그 반대는 상대주의 윤리관으로 전문분야 몰입수준이 낮은 개인은 기술된 규정보다도 직접적이고 특정 환경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Forsyth(1990)에 따르면,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은 사람은 첫째 상황, 둘째 인정된 규정에 기준을 두고 의사결정을 고려한다고 한다. 이것은 상대주의적 윤리관이 높은 개인은 의사결정결과 특정상황(환경)에서 중요한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상주의 윤리 성향이 높은 사람은 관계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피해(손실) 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이다. 즉 이상주의적 윤리관이 보다 높은 사람은 모든 의사결정을 그 결과의 좋고 나쁜 결함보다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의 윤리적 관(상대주의와 이상주의)은 기업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기대할 수 있다. 이익조작에 대한 결정은 기업의사결정의 한 예이다. 상대적으로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한 사람은 이익조작이 자신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 즉, 그 결과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손실)를 입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하려는 결

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Forsyth, 1992). 또한 이상주의적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보다 엄격하게 윤리적 판단을 할 것이며, 비윤리적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의사결정을 더 선호할 것이다(Elias, 2002). 상대주의적인 윤리관이 높은 사람들은 먼저 환경(상황)을 생각하고, 그 결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손실은 생각하지 않는다(Forsyth, 1992). 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보다 관대하게 결정(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Elias, 2002). 또한 이익조정상황에서의 윤리적 딜레마를 고려한 개인의 역량이 차이는 개인의 윤리적 성향에 따라 이익조정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Greenfield Jr. 2005).

이상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익조정 인식은 이상주의 윤리관 및 상대주의 윤리관과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상주의윤리관을 가진 회계담당자가 윤리적 딜레마와 같은 어려운 의사결정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할 때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보다 더 윤리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반면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진 회계담당자는 경영자나 회계책임자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개인의 윤리적 신념보다도 상사의 지시에 따라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즉 이상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일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지고,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된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1을 설정하였다.

**가설1: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에 따라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것이다.**

**가설1-1: 이상주의 윤리관은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상대주의 윤리관은 기업의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

기업환경 특히 이익수준이 재무 분석가들의 예측치과 일치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익조작으로부터 생겨나는 잠재적 이익(효익)은 이익조정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본 논문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것은 개인의 윤리관(도덕적가치관)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Shaub 등(1993: 145-169)은 도덕적 민감성을 이익조정행위에 있어 윤리적 상황이나 딜레마를 인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이익조정행위 상황에서 전문분야몰입의 개인수준과 도덕적민감성과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또한 Greenfield Jr.(2005)는 개인의 윤리적 태도와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추구 성향에 따라 개인의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Ziegenfuss(200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윤리강령이 있는 경우 전문가로서의 소명의식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전문분야몰입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전문분야에 몰입하게 하고 그 전문분야의 윤리강령이 주어 진다면 이익조정행위는 줄어들 것이다. 그 반대로 전문가들이 몰입을 하지 않는 경우 이익조정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 간에는 일정한 패턴이 존재함을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는 ‘몰입딜레마’ 또는 ‘조직-전문가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 대한 몰입으로 인해 그들이 소속된 조직이익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관료주의적 특성을 보일수록 두 몰입 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분야몰입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지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2를 설정하였다.

**가설2: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제3절 연구방법

### 1. 설문지 설계 및 자료처리내용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선행연구의 설문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에 적합하게 수정을 가한 후 설문지 개발의 일반적 기준에 유의하면서 작성하였다. 또한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위해서 제주대학교경영대학원 세정대학원생, 경영대학원생 및 제주시내 일부기업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총 5개 항목 29문항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익조정 시나리오, 전문분야몰입 시나리오, 상대주의 시나리오, 이상주의 시나리오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은 성별에서부터 직급까지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둘째항목에 사용된 시나리오 사례는 Clikeman과 Henning(2000) 그리고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에서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순이익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당해연도 이익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일상적인 제조설비의 수선유지를 다음해로 연기시킬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경영자는 예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의 주식이 격과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다. 회사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한방법으로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설비보수 계획을 다음해 3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설비보수 계획이 연기되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경영자나 회사의 평판도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 내용을 읽고 회사의 이익조정 인식에 대한 지지정도를 리커트 7점 척도에 의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지지정도(수준)는 이익조정 인식의 대응치이고



본 연구에 있어서 종속변수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회계담당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익조정행위를 결정할 수 없으며, 이익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게 되었다.

셋째는 이익조정 인식에 대한 응답이 끝나면 Aranya 등(1981: 271-BD)이 개발하고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전문분야몰입 설문사례에 대한 질문에 답하게 된다. 전문분야몰입수준과 관련된 질문은 조직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신뢰와 수용, 자발적으로 회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려는 의지, 회사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 등과 관련시켜 묘사되었다.

윤리관인 상대주의와 이상주의에 대한 물음은 Forsyth(1992)의 EPQ 내용을 사용하였다.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했으며,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전문분야몰입과 윤리관에 대한 질문은 리커트 7점 척도크기로 사용되었으며, 응답표시는 동의여부를 가지고 각각 설문지에 1번은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7번은 매우 동의한다로 구성하였다. 설문지구성을 요약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설문지의 구성

조사내용	문항 수	출처
인구통계적 특성	8	명목, 서열, 등간, 비율척도
이익조정 인식 (시나리오)	1	Clikeman & Henning(2000)
전문분야 몰입	10	Aranya등(1981)
상대주의 윤리관	5	Forsyth(1992)
이상주의 윤리관	5	Forsyth(1992)

##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 1) 이익조정인식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행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제적인 이익조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현실성이 있는 설문지 조사에 의한 간접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과거 경험이나 현재의 상태를 질문하기 보다는 어떤 특정 상황 하에서 응답자의 기본적인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한다면 비교적 솔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Healy와 Wahlen(1999)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투자자나 채권자를 오도하거나 회계수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약관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경영자가 의도적으로 재무보고나 회계처리과정에 개입하여 공시되는 재무정보를 변경시키는 것”을 이익조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이익조정은 Clikeman과 Henning(2000)에 의해 개발되고 Greenfield Jr.(2005)가 사용한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회사는 겨울휴가 시즌인 12월 3주와 4주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휴가 기간 동안 설비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해왔습니다. 설비보수 비용 금액은 매우 크고, 관행상 당해 연도 비용으로 회계처리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해 올해 회사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자는 예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의 주식가격과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설비보수 계획을 다음 해 3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중입니다. 설비보수 계획이 연기되면 올해 12월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경영자나 회사의 평판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시나리오에서 설비보수에 대한 내용을 연기하여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을 통해 이익조정에 대한 인식도를 측정하였다.

## 2)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Forsyth(1992)는 개인의 윤리적 이데올로기를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보다 높은 상대주의 윤리관을 지향하는 개인은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이익조정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주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특정 환경에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결정이 윤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보다 높은 이상주의 윤리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결정으로부터 누군가가 상황이 더 나빠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결과를 검토한다고 한다. 이들은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주의는 개인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에 관련시켜 묘사되었으며, 이상주의는 의사결정 관점을 인간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조작되었다. 이것은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 적용되었던 Forsyth(1992)의 EPQ 사례를 재인용한 것이다.

## 3) 전문분야몰입

전문분야몰입은 조직몰입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첫째, 전문가직업 목표와 가치에 대한 강한신념과 수용 둘째, 자발적으로 전문분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는 의지 셋째, 전문분야의 한 구성원으로 계속 남으려는 강한 욕구로 구성된다고 정의를 내렸다(Porter et al., 1974).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조직심리학에서 연구되어진 것 중 직무일치와 관련된(인간의 요구와 직무속성간의 일치에 관련된 것, 능력과 직무요건간의 일치와 관련된)것 등 응답자의 기본적인 성향에 기초한 판단을 요구하는 간접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Shaub 등(1993)은 회계감사인의 윤리관이 그들의 전문분야몰입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실험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전문분야몰입은 그들의 윤리적 태도와 관련이

있다는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를 근거로 Greenfield Jr.(2005)는 Shaub 등(1993)의 연구를 확장하여 전문분야몰입이 개인의 이익조정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전문분야몰입수준은 이익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회계담당자개인의 윤리관을 통해 전문분야몰입수준이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Greenfield Jr.(2005)가 이용한 설문사례를 재인용하였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조사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자료는 다음과 같이 수집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은 상장기업(외부감사대상기업)의 회계담당자를 중심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담당자로 조사대상을 한정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을 측정하고 투명한 회계를 이끌기 위한 방안을 이끌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직접 전화 통화를 실시한 후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설문지를 발송하고 같은 방식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셋째, 설문조사 시점은 2009년 11월 9일부터 11월 27일까지이며, 총 1,200부를 송부하여 301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자로 판단되는 16부를 제외하여 28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 및 통계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가설을 기초로 하여 설문 내용이 구체화하였으며, 통계패키지인 SPSS 16.0을 활용하여 가설 검증에서는 다중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통계적 특성 및 추가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및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이용하여 많은 변수들로부터 요약된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요인분석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기초로 하여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변수의 개수보다 적은 수의 요인으로 자료 변동을 설명하는 다변량 분석기법이다. 요인분석은 연구분석 목적에 따라서 탐색적인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나뉜다. 탐색적인 요인분석(EFA :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은 이론상으로 체계화되지 못하거나 정립되지 않은 연구에서 연구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을 가진 분석방법을 의미한다. 윤리관 및 전문분야 몰입에 대한 정확한 측정척도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각 개념들의 요인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추가분석에서는 차이검증(t-검증)을 실시하였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관계 연구뿐만 아니라 회계담당자의 연령, 직급 등 표본의 특성에 따라 측정개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연구에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가분석을 통해 파악된 회계담당자의 특성에 따라 집단을 분류하고 집단에 따른 개념 간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 제4장 실증분석

### 제1절 예비분석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및 기술통계

##### 1)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표 4-1>과 같다.

<표 4-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234	82.1	직급	과장급	176	61.8
	여성	51	17.9		차장급 이상	109	38.2
기업유형	외부감사	127	44.6	연령대	30-40세	209	73.3
	증권시장상장	158	55.4		41-50세	76	26.7
업무분야	회계팀	248	87.0	업종	제조업	168	58.9
	기획팀	37	13.0		건설업	16	5.6
현업무 근무 년수	8년 미만	114	40.0	서비스업	88	30.9	
	8년 이상	171	60.0		유통업	6	2.1
현직장 근무 년수	8년 미만	145	50.9	무역업	4	1.4	
	8년 이상	140	49.1		기타	3	1.1

표본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234명으로 82.1%, 여성이 51명으로 17.9%의 비율을 나타냈고, 연령대에서는 30-40세가 209명으로 73.3%, 41-50세가 76명으로 26.7%의 비율을 나타냈다.

기업유형에서는 외부감사법인근무자가 127명으로 44.6%, 증권시장상장법인근무자가 158명으로 55.4%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업무분야에서는 회계팀이 248명으로 87.0%, 기획팀이 37명으로 13.0%의 비율을 나타냈다. 현업무 근무



년수는 8년 미만인 114명으로 40.0%, 8년 이상이 171명으로 60.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현직장 근무 년수에서는 8년미만이 145명으로 50.9%, 8년 이상이 140명으로 49.1%의 비율을 나타냈다. 직급에서는 과장급이 176명으로 61.8%의 비율을 나타냈고, 차장급 이상이 109명으로 38.2%의 비율을 나타냈다.

업종에서는 제조업종사자가 168명으로 58.9%, 서비스업종사자가 88명으로 30.9%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건설업 16명, 유통업 6명, 무역업 4명, 기타가 3명으로 나타났다.

## 2)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 인식이 연구 개념으로 이용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파악함으로써 각 개념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표 4-2>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위수	최빈값	표준편차
이상주의 윤리관	1.00	7.00	5.05	5.40	7.00	1.71
상대주의 윤리관	1.00	7.00	4.09	4.20	4.00	1.53
전문분야몰입	1.00	7.00	4.95	5.28	6.00	1.21
이익조정 인식	1.00	7.00	3.91	4.20	6.00	1.63

<표 4-2>에서 보는바와 같이 측정항목에 대한 기술통계결과 이상주의 윤리관이 5.05로 가장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분야몰입이 4.95, 상대주의 윤리관이 4.09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설문지가 7점 Likert 척도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익조정 인식의 경우 4보다 낮은 3.91의 값을 나타내 전반적으로 이익조정 인식이 보통 정도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위수 값을 살펴보면 이상주의 윤리관은 5.40, 전문분야몰입이 5.28, 상대주의 윤리관이 4.20, 이익조정 인식이 4.20의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 2.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연구 설계에서 설문문항으로 설계한 변수가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응답되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신뢰성(reliability)이란 측정문항에 대해 여러 응답자들이 반복 측정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내적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갖는가를 판단하는 개념이다(임종원, 박형진, 강명수 2003, p.31). 신뢰성 검증 방법 중에서 본 연구는 신뢰성계수(cronbach's alpha)를 이용한 신뢰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변수의 타당성이란 측정하려는 변수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의 동일성 확인에 관한 문제로, '무엇'이 측정되고 있는지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과제가 된다(김광웅, 2003: p.311). 내용타당성(content validity)은 측정변수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된다. 측정변수의 내용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기존 측정문항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의 설계과정에서 선행연구에서 참고한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내용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개념타당성(construct validity)은 크게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과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다(이종원, 박형진, 강명수 2003, p.238). 집중타당성이란 비슷한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끼리는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고, 판별타당성이란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변수끼리는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설문문항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방법으로 설문문항으로 구성한 변수들의 집중타당성, 판별타당성을 통해 개념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의 요인추출모델로는 주성분분석 방식을 이용하였고 요인회전 방법으로는 베리맥스(Varimax)를 선택하였으며, 요인추출기준으로는 고유치

(eigen-value) 1.0 이상의 값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은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이익조정, 전문분야 몰입의 총 4개로 구성되었는데 이 중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은 표본의 윤리관을 측정하는 문항이며, 나머지 2개 문항은 회계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 및 행동 양식이기 때문에 크게 두 개의 범주로 연구 개념을 구분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3> 윤리성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		공통성	항목삭제 시 신뢰도계수	신뢰도계수
		1	2			
이상주의 윤리관	is1	.889	-.313	.888	.970	.974
	is3	.877	-.389	.920	.965	
	is4	.865	-.381	.894	.968	
	is5	.864	-.388	.896	.968	
	is2	.857	-.346	.933	.964	
상대주의 윤리관	rs2	-.313	.837	.799	.870	.904
	rs4	-.335	.807	.763	.874	
	rs1	-.337	.804	.760	.877	
	rs3	-.340	.762	.697	.887	
	rs5	-.392	.673	.608	.900	
고유치		7.086	1.072	총분산설명력=81.577		
분산설명력		70.861	10.716			
KMO=.936, Bartlett's 구형성검정치(df)=3192.046(45), 유의확률=.000***						

\*\*\* p<.001

<표 4-3>의 윤리성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요인 분석 결과 KMO 값이 .936으로 .5보다 높고 Bartlett's 구형성검정치 3192.046도 유의한 값을 나타내 10개 변수에 대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첫 번째 요인은 이상주의 윤리관과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고, 두 번째 요인은 상대주의 윤리관 관련 변수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라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이라 요인명을 명명하였고 각각의 신뢰도계수는 .974와 .904로 매우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고 있다.

요인적재량을 살펴볼 때 이상주의 윤리관과 상대주의 윤리관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문항들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을 추출하였을 때 두 개 요인의 충분산설명력은 81.577%로 나타났다.

<표 4-4> 전문분야몰입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요인명	변수	요인	공통성	항목삭제시 신뢰도계수	신뢰도 계수
		1			
전문분야 몰입	pc3	.821	.812	.923	.937
	pc5	.813	.704	.928	
	pc1	.803	.723	.927	
	pc6	.801	.723	.929	
	pc4	.785	.621	.932	
	pc7	.782	.636	.933	
	pc2	.741	.671	.932	
	pc8	.673	.668	.929	
	pc9	.565	.660	.933	
고유치		8.593	충분산설명력=76.800		
분산설명력		61.378			
KMO=.927, Bartlett's 구형성검정치(df)=4498.777(91), 유의확률=.000***					

\*\*\* p<.001

전문분야몰입에 관한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결과 KMO 값은 .927로 .5 이상이며, Bartlett's 구형성검정치는 4498.777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000으로 요인분석이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총 1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신뢰도계수는 .937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고, 고유치 1을 기준으로 할 때 충분산설명력은 76.800의 값을 나타냈다.

### 3. 상관관계분석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제시된 변수들을 고려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하였다. 상관관계분석은 탐색적 연구에서 가설검증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가설검증을 실시하기에 앞서 모든 연구가설에 사용되는 변수들 간의 개념관계의 어느 정도(강도)를 그리고 어떤 방향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변수들 간에 관련성에 대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상관관계분석은 모든 분석에 앞서 요구되는 선행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윤리관, 전문분야몰입, 이익조정 인식간의 상관성을 살펴봄으로써 개념간의 관계성과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결과는 <표 4-5>와 같다.

<표 4-5> 상관관계분석

구분		이익조정 인식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	전문분야 몰입
이익조정 인식	Pearson 상관계수	1			
	유의확률	-			
이상주의 윤리관	Pearson 상관계수	-.627 ***	1		
	유의확률(양쪽)	.000	-		
상대주의 윤리관	Pearson 상관계수	.718 ***	-.698 ***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	
전문분야 몰입	Pearson 상관계수	-.521 ***	.715 ***	-.460	1
	유의확률(양쪽)	.000	.000	.000	-

\*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상대주의 윤리관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문분야몰입의 경우는 이익조정과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상주의 윤리관과 전문분야몰입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며,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아질수록 이익조정 인식도 높은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상관관계 전체를 살펴볼 때 상대주의 윤리관, 이익조정 인식 간에는 상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개념과 구분되어 전문분야몰입과 이상주의 윤리관이 상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 제2절 분석결과 및 논의

### 1. 가설검증

단순회귀모형은 하나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단일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현상은 매우 드물다. 대부분의 인과관계 구조는 여러 요인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마련이며, 다수의 독립변수를 모형에 포함시키는 다중회귀분석이 불가피해진다.

다중회귀분석은 오차분산(Error Variance)을 줄이고 종속변수에 대한 보다 충실한 설명이나 예견이 가능하고, 다른 독립변수의 값을 통제된 상태에서 특정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각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의 상대적인 비교보다 정밀한 인과관계의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회귀분석기법은 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하며 통계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기법에 비해 정밀한 추정 및 예측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전문분야 몰입, 이상주의 윤리, 상대주의 윤리관을 설정한 후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6>과 같다.



<표 4-6> 가설검증결과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공선성 통계량	
		B	표준오차	베타			공차한계	VIF
이익 조정 인식	(상수)	-.038	.042		-.912	.363		
	이상주의 윤리관	-.520	.054	-.505	-9.545	.000***	.614	1.629
	상대주의 윤리관	.608	.041	.622	14.978	.000***	.995	1.005
	전문분야 몰입	-.343	.053	-.343	-6.480	.000***	.612	1.633
		$R^2 = .720$	수정된 $R^2 = .513$	$F\text{-value} = 100.692$		$\text{Prob} = .000^{***}$		

\*  $p < .05$ , \*\*  $p < .01$ , \*\*\*  $p < .001$

분석결과, F값이 100.692이며 이에 대한 유의확률을 볼 때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다중회귀분석이 이뤄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수정된  $R^2$  값이 .513으로 독립변수인 전문분야 몰입, 이상주의 윤리관,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을 51.3% 설명해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공선성 분석 결과 VIF 값이 모두 3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독립변수간 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아 걱정할 다중회귀분석이 이뤄졌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 1) 이상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1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286(P=.000)$ 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도 t값이  $-9.545$ 로  $p<.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 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520$ 으로 이상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1은 채택되었다.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서도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귀계수를 살펴볼 때 이상주의 윤리관은 전문분야물 입보다 더 높게 이익조정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는 윤리적 의사결정관점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복지향상에 피해를 주는 것은 거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 2)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601(P=.000)$ 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도 t값이  $14.978$ 로  $p<.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608$ 로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절대값으로 이익조정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1-2는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Greenfield Jr.(2005)의 연구에서도 상대주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ouglas와 Wier(2000: 267-278)의 연구에서도 상대주의 윤리관이 강할수록 예산슬랙이 더 많이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을 하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대주의 윤리관이 높은 회계담당자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 보다는도 기업의 특정상황이 도덕성을 결정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전문분야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전문분야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익조정 인식의 상관관계가  $-0.398(P=.000)$ 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도 t값이  $-6.480$ 으로  $p<.001$  수준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귀계수 값이  $-0.343$ 으로 전문분야 몰입이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문분야 몰입은 이익조정 인식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2는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전문분야몰입이 높을수록 이익조정 인식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전문분야몰입이 높은 회계담당자일수록 ‘몰입딜레마’ 또는 ‘조직-전문가갈등’상황에 직면했을 때 전문가는 자신의 전문분야 대한 몰입으로 인해 조직이익보다는 자신의 전문분야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여고 있으며, 특히 자신이 소속된 조직이 관료주의적 특성을 보일수록 전문분야몰입은 높게 인식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Shaub 등(1993: 145-165) 과 Greenfield Jr.(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 2. 표본의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

본 연구의 목적을 살펴보면 회계담당자의 윤리관 및 전문분야몰입과 이익조정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관계 연구뿐만 아니라 전문가적 자질을 고려할 때 회계담당자의 직장경력과 업무경력이 이익조정 인식, 전문분야몰입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직장경력과 업무경력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1) 직장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현직장 근무 경력에 따라 이익조정, 전문분야 몰입,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7> 직장 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익조정 인식	8년 미만 8년 이상	145 140	3.83 3.99	1.64 1.61	-0.826	.410
전문분야 몰입	8년 미만 8년 이상	145 140	4.87 5.04	1.28 1.15	-1.164	.245
상대주의 윤리관	8년 미만 8년 이상	145 140	4.19 3.98	1.39 1.66	1.135	.257
이상주의 윤리관	8년 미만 8년 이상	145 140	4.92 5.19	1.65 1.77	-1.335	.183

\* p<.05, \*\* p<.01, \*\*\* p<.001

그런데,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익조정에서는 8년 미만이 3.83의 값을, 8년 이상은 3.99의 값을 나타냈으며, 전문분야 몰입에서는 8년 미만이 4.87의 값을, 8년 이상이 5.04의 값을 나타냈다.

상대주의 윤리관에서는 8년 미만이 4.19의 값을, 8년 이상이 3.98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상주의 윤리관에서는 8년 미만이 4.92의 값을, 8년 이상에서는 5.19의 값을 나타냈다.

## 2) 회계관련 업무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회계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에 따라 이익조정, 전문분야몰입,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상주의 윤리관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평균값을 살펴보면 이익조정에서는 8년 미만이 3.97의 값을, 8년 이상에서는 3.86의 값을 나타냈으며, 전문분야 몰입에서는 8년 미만이 4.95의 값을 8년 이상이 4.96의 값을 나타냈다. 상대주의 윤리관에서는 8년 미만이 4.46의 값을, 8년 이상이 3.84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상주의 윤리관에서는 8년 미만이 4.71을, 8년 이상이 5.28의 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경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상대주의 윤리관이 낮아지고, 이상주의 윤리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몰입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회계업무경력기간이 많아질수록 조직에서의 지위상승이 있게 됨에 따라 조직이 추구하는 가치와 규범을 더욱 내면화함으로써 전문분야에 더욱 몰입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몰입현상은 전문가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조직에 고용되기 전에 공식적, 비공식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형성된다. 또한 이러한 사회화 과정을 통해 전문가는 어떤 조직에 소속되든지 간에 자신의 전문분야의 가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교육받으며, 이러한 가치는 교육기간이 길수록 더욱 강력하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표 4-8> 업무 경력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익조정 인식	8년 미만 8년 이상	114 171	3.97 3.86	1.56 1.68	.536	.592
전문분야 몰입	8년 미만 8년 이상	114 171	4.95 4.96	1.11 1.28	-.093	.926
상대주의 윤리관	8년 미만 8년 이상	114 171	4.46 3.84	1.27 1.63	3.405	.001**
이상주의 윤리관	8년 미만 8년 이상	114 171	4.71 5.28	1.54 1.79	-2.804	.005**

\* p<.05, \*\* p<.01, \*\*\* p<.001

### 3) 직급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직급에 따라 이익조정, 전문분야 몰입,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익조정,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익조정에서는 과장급이 3.68의 값을, 차장급 이상이 4.26의 값을 나타냈으며, 전문분야 몰입에서는 과장급이 5.04의 값을, 차장급 이상이 4.81의 값을 나타냈다. 상대주의 윤리관에서는 과장급에서는 3.83의 값을, 차장급 이상이 4.51의 값을 나타냈으며, 이상주의 윤리관에서는 과장급이 5.28의 값을, 차장급 이상이 4.68의 값을 나타냈다.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직급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상대주의윤리관이 높아지고, 이상주의 윤리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분야몰입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회계업무경력과 상반된다.

이러한 점은 기업의 경쟁력제고 등의 차원에서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성과평과에 의한 능력위주의 인사정책에서 기인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신에게 어느 정도 권한이 주어졌을 때 이익조정인식이 보다 더 높게 발생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4-9> 직급에 따른 요인 차이 분석

구분	빈도	평균값	표준편차	t값	유의확률
이익조정 인식	과장급	176	3.68	-2.968	.003**
	차장급이상	109	4.26		
전문분야 몰입	과장급	176	5.04	1.532	.127
	차장급이상	109	4.81		
상대주의 윤리관	과장급	176	3.83	-3.694	.000***
	차장급이상	109	4.51		
이상주의 윤리관	과장급	176	5.28	2.910	.004**
	차장급이상	109	4.68		

\* p<.05, \*\* p<.01, \*\*\* p<.001

## 제5장 결론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은 기업에 있어서 윤리경영의 기본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회계담당자의 윤리성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되는 경우가 있고, 기업실패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회계윤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동안의 회계담당자의 윤리관에 대한 연구는 윤리관 자체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고, 회계담당자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규범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기업의 이익조정행위와 관련하여 경영자 개인의 윤리적 태도가 이익조정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편이다. 더구나 기업의 이익조정행위는 내부정보생산자인 경영자나 회계책임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회계담당자 개인의 윤리관이 이익조정행위에 대한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익조정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요인 즉, 상대주의 윤리관, 이상주의 윤리관, 전문분야 몰입을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추출하고 이러한 개념들과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 인식간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윤리관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상호관계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마다 상대주의와 이상주의 윤리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때문에 두 윤리관은 평형상태를 이룬다기 보다는 하나의 윤리관이 강하게 나타나면 다른 한 쪽의 윤리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상관관계분석 결과 절대적인 진리나 윤리관이 있다는 관점이 강할수록 전문분야 몰입 정도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리학 측면에서 볼 때 상대주의 윤리관과 이상주의 윤리관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지만 회계담당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이상주의 윤리관이 강할수록 전문분야 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회귀관계를 살펴볼 때 전문분야몰입과 이상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음(-)의 영향을 미치며, 상대주의 윤리관은 이익조정 인식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계담당자들이 전문분야몰입을 높인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이익조정행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영자나 지분소유자의 압력만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에 의해서 이익조정 인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조정에 대한 법적인 규제와 더불어 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윤리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회계 또는 경영학전공학생이나 회계감사인에 대한 윤리교육은 한 사업체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윤리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윤리교육을 강화시키고 일선의 경영자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소양을 넓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업체들의 투명한 경영정도를 높이는 주요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살펴본다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익조정 인식은 개인의 윤리관, 전문분야몰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교육을 통해 올바른 윤리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선행연구가 부족했던 이익조정과 관련된 연구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이익조정행동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위해 개인의 윤리관과 전문분야 몰입을 이용하여 회계담당자의 심리적 측면을 단계적으로 파악했다는데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가 설문지를 통한 연구이기 때문에 설문 내용이나 설문지 구성문제로 인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이익조정은 최고경영자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최고경영자와의 심층적인 면접을 통하여 좀 더 심도 있는 행동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윤리교육을 받은 집단과 윤리교육을 받지 않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엄격히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실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경영회계전공학생과 비전공학생들 간에 이익조정행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 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권선국·조성표·김도형(2005). 분식회계 예방교육 사례. 『회계저널』, 14(4), 153-180.
- 권수영·김문철·손성규·최관·한봉희(2003).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서울: 신영사.
- 김계수(2007).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광웅(2003). 방법론강의, 서울: 박영사.
- 김구배·김미화·기종진(2001). 윤리적 가치관이 회계전문직의 이익관리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학회, 2004』, 29(1), 53-59.
- 민수정(2001). 『적자발생 및 이익감소를 회피하기 위한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춘래·김성민(1996). 법인세율 인하와 이익관리. 『회계학연구』, 21(4), 79-97.
- 백원선·최관(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24(1), 115-140.
- 원정연·이명곤(2001). 회계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감사인 평가 방안을 중심으로. 『회계와 감사연구』, 35, 75-77.
- 윤순석(1998). 영업현금흐름에 따른 이익관리 현상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23(1), 107-126.
- 임종원·박형진·강명수(2003). 『마케팅조사방법론』, 서울: 법문사.
- 정규언(1992). 경영자변경과 이익이연행위. 『회계학연구』, 14, 27-48.
- 정재을(2001). 도덕적발달수준과 통제의 원천이 회계담당자의 윤리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정보학회 추계학술연구발표논문집, 2001』, 23, 23-51.

- 정충영·최이규(2009). 『한글용 SPSS 14.0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 최관·김문철(1997). 신규상장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 연구』, 22(2), 1-28.
- 최관·백원선(1999).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 연구』, 24(4), 1-28.
- 최관·정병욱(1998). 부도발생기업의 회계선택. 『경영학연구』, 27(2), 495-513.
- 최성대(2008). 『은행의 관계마케팅 관련 요인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봉희(1998). 발생주의적 조정의 유용성 저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23(4), 53-80.

## 2. 국외문헌

- Ahadiat, N., and Mackie, J. J.(1993). Ethics education in accounting: An investigation of the importance of ethics as a factor in the recruiting decisions of public accounting firms.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11(2), 243-257.
- AICPA(2002). *Consideration of fraud in financial statement audit*. New York, NY : AICPA.
- Aranya, N., Pollock, J. and Amernic, J.(1981). An examination of professional commitment in public accounting. *Accounting, Organizations and Society*, 6(4), 271-280.
- Balsam, S., E. M. and Marquardt C (2002). Accruals management, investor sophistication, and equity valuation: Evidence from 10-q filings.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4), 987-1012.
- Barnea, A., Ronen, J. and Sadan, S.(1976). Classificatory smoothing of income with extraordinary items.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10-122.
- Barnett, T. and Vaicys, C.(2000). The moderating effect of individuals' perception of ethical work climate on ethical judgments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27(4), 351-362.
- Barnett, T. K. Bass, G. Brown and Herbert, F. J.(1998). Ethical Ideology and Ethical Judgements of Marketing Profession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7, 715 - 723.
- Bartov, E.(1993). The Timing of Asset Sales and Earnings Manipulation. *The Accounting Review*, 68, 840-855.
- Beasley, M. S., Carcello, J. V. and Hermanson, D. R.(1999).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1987-1997, An Analysis of US Public Companies*. Research Commissioned by the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
- Beidleman, C.(1973). Income smoothing: The role of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48(4), 653-667.
- Bruns, W. J. and Merchant, K. A(1990). The dangerous morality of managing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August, 22-25.
- Chonko, L. B., Wotruba, T. R. and Loe, T. W.(2003). Ethics Code Familiarity and Usefulness: Views on Idealist and Relativist Managers under Varying Conditions of Turbulence. *Journal of Business Ethics*, 42(3), 237-252.
- Clikeman, P. M. and Henning, S. L.(2000). The Socialization of Undergraduate Accounting Student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15(1), 1-17.

- Collins, D. W. & Hribar, B.(2000). Earnings-based and accrual-based market anomalies: One effect or two.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9, 101-123.
- Cooper-Hakim, A., & Viswesvaran, C.(2005). The construct of work commitment: Testing an integrative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31(2), 241-259.
- De Angelo, L.(1986). Accounting Member as Market Valuation Substitutes: A study of Management Buyouts of Public Shareholders. *The Accounting Review*. 61, 400-420.
- (1988). Managerial Competition, Information Costs,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Use of Accounting Performance Measures in Proxy Contest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0, 3-36.
- Dechow, P. and Sloan, R.(1991). Executive Incentives and the Horizon Problem: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 51-89.
- Dechow, P. M., Sloan, R. G. and Sweeney A. P.(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2), 193-225.
- Defond, M. L., and Jiambalvo, J.(1994). Debt covenant violations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51-89.
- Dhaliwal, D.(1980). The Effects of Firm's Capital Structure on the Choice of Accounting Methods.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78-84.
- Douglas, P. and Wier, B.(2005). Integrating ethical dimensions into a model of budgetary slack-cre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28, 267-278.
- Douglas, P. C., Davidson, R. A., & Schwartz, B. N.(2001).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ethical orientation on accountants' ethical judgments. *Journal of Business Ethics*, 34, 101-121.

- Eastman, J. A., Choi, S. U. S., Li, S., Yu, W. and Thompson, L. J.(2001). Anomalously Increased Effective Thermal Conductivity of Ethylene Glycol-Based Nanofluids Containing Copper Nanoparticles. *Applied Physics Letters*, 78(6), 718-720.
- Elias, R. Z.(2002). Accountants' perceptions of the ethics of earnings management. *Research on Accounting Ethics*, 8, 103-124.
- Fama, E. F.(1980).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8(2), 288-307.
- Forsyth, D. R.(1980). A Taxonomy of Ethical Ideolog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75-184.
- \_\_\_\_\_ (1992). Judging the Morality of Business Practices: The Influence of Personal Moral Philosophies. *Journal of Business Ethics*, 11, 461-470.
- Gaver, J., K. Gaver, and Austin, J.(1995). Additional Evidence on Bonus Plans and Income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 3-28.
- Gordon, H. S.(1954). Economic theory of a common property resource: The fisher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2, 124-142.
- Greenfield Jr., A. C.(2005). Introducing an Ethical Dimension into the Earnings Management Decision. Virginia Commonwealth University, A Doctor's Degree.
- Guidry, F., Andrew Leone, and Rock, S.(1999). Earnings-Based Bonus Plans and Earnings Management by Business-Unit Manager.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6, 113-142.
- Hall, R. H.(1968). Professionalization and bureaucrat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92-104.
- Healy, P.(1985). The effects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 85-107.
- Healy, P. and Wahlen, J.(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s*, 13, 365 - 383.
- Holthausen, R., Larcker, D. and Sloan, R.(1995). Annual Bonus Schemes and the Manipulation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 29-74.
- Hribar, P. and Collins, D.(2002).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105-134.
- Huss, H. F. and Patterson, D. M.(1993). Ethics in accounting: values education without indoctrination. *Journal of Business Ethics*, March, 235-245.
- Jeffrey, C. and Weatherholt, N.(1996). Ethical development, professional commitment, and rule observance attitudes: A study of CPAs and corporate accountants.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8, 8-31.
- Jensen, M. R. and Meckling, W. H.(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305-360.
- Jones, J.(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193-228.
- Kaplan, S. E., Reneau, J. H., and Whitecotton, S. M.(2001). The Effects of Predictive Ability Information, Locus of Control, and Decision Maker Involvement on Decision Aid Reliance.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14, 35-50.
- Kerr, S. and Schriesheim, C. A.(1974). Consideration, initiating structure, and organizational criteria—an update of Korman's 1966 review. *Personnel Psychology*, 27, 555 - 568.

- Knotts, T. L., Lopez, T. B., and Mesak, H. I.(2000). Ethical judgments of college students: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for Business*, 75, 158-163.
- Kohlberg, L.(1984). *Essays i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sychology of moral development*. New York: Harper & Row.
- Merchant, K. A. and Rockness, J.(1994). The ethics of managing earning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3, 79-94.
- Miller, K.(1998).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approaches and processes*. Ohio: Wadsworth.
- Moese, O. D.(1987). Income Smoothing and Incentives : Empirical Test Using Accounting Changes. *The Accounting Review*, 2, 358-377.
- Pedhazur, E. J. and Schmelkin, L. P.(1991). *Measurement, design, and analysis : An integrated approa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rrow, C.(1986). *Complex Organization*. N.Y.: Random House.
- Ponemon, L. A.(1993). Can ethics be taught in accounting?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Fall, 1 - 29.
- Ponemon, L. and Glazer, A.(1990). Accounting Education and Ethical Development: The Influences of Liberal Learning on Students and Alumni in Accounting Practic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5-208.
- Porter, L. W., Steers, R. M., Mowday, R. T., and Boulian, P. V.(1974)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among psychiatric technicia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59, 603-609.
- Pourciau, S.(1993). Earnings Management and Nonroutine Executive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6, 317-336.



- Rangan, S.(1998). Earnings management and the performance of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0(October), 101-122.
- Reichers, A. E.(1985). A review and reconceptualization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0, 465-476.
- Rest, J.(1983). "Morality"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ed. Mussen, P. John Wiley & Sons, New York.
- Schipper, K.(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 3(4), 91-102.
- Schlenk, B. R, & Forsyth, D. R.(1977).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3, 369-396.
- Shaub, M. K., D. W. Finn and Munter, P.(1993). The effects of auditors' ethical orientation on commitment and ethical sensitivity. *Behavioral Research in Accounting*, 5, 145-169.
- Sloan, R. G.(1996). Do stock prices fully reflect information in accruals and cash flows about future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71(3), 289-315.
- Stark, J., Lowther, M., Hagerty, B., and Orczyk, C.(198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pre-service professional programs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57(3), 231-258.
- Subramanyam, K. R.(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 Economics*, 22, 249-281.
- Sweeney, A.(1994). Debt-Covenant violations and manager's accounting respon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 281-309.
- Thornton, B.(2000). The Moon Hoax: Debates About Ethics in 1835 New York Newspapers. *Journal of Mass Media Ethics*, 15(2), 89-100.



- Wallace, J. E.(1993). Professiona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Compatible or incompatibl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2, 333-349.
- Watts, R. and Zimmerman, J.(1978). Towards a positive theory of the determination of accounting standards. *The Accounting Review*, January, 112-134.
- Wiener, Y. and Vardi, Y.(1980). Relationship between job, organization and career commitments and work outcomes: an integrative approach.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26, 81-96.
- Xie, H.(2001). The mispricing of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6(3), 357-373.
- Ziegenfuss, D. E.(2001). An examination of the professionalism of fraud examiners. *Southern Business Review*, 27(1), 23-33.

[설문지]

## 회계담당자의 이익조정관련 조사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회사에 대한 윤리관에 관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되고 순수한 학술적·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09. 11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교수 이상봉

연구자 : 제주대학교 경상대학 회계학과 박사과정 문영배

전화 : 010-9663-5305 / 팩스 : 064-758-3367 / 메일 : eutdeum@hanmail.net

I. 다음은 귀하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30세      ② 31-35세      ③ 36-40세      ④ 41-45세      ⑤ 46-50세      ⑥ 51세 이상
3. 귀하의 회사 업종은?  
① 제조업      ② 건설업      ③ 서비스업      ④ 유통업      ⑤ 무역업      ⑥ 농축수산업      ⑦ 기타
4. 귀하의 직급은?  
① 사원급      ② 대리급      ③ 과장급      ④ 차장급      ⑤ 부장급      ⑥ 이사급 이상
5. 귀하의 업무분야는?  
① 회계팀      ② 영업팀      ③ 총무팀      ④ 기획팀      ⑤ 기타(                                      )
6. 귀하가 현 직장에서 근무하신 총기간은? 약 (                                      )년
7. 귀하가 지금 업무분야에 근무하신 기간은? 약 (                                      )년
8. 귀하의 회계 지식 정도는?  
① 전혀 모른다      ② 모르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II. 다음 시나리오를 읽고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회사는 겨울휴가 시즌인 12월 3주와 4주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휴가 기간 동안 설비자산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를 해왔습니다. 설비보수 비용 금액은 매우 크고, 관행상 당해 연도 비용으로 회계처리 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올해 회사의 이익이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자는 예상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의 주식가격과 채권의 신용등급**에 대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회사는 과거 관행적으로 해왔던 모든 설비보수 계획을 다음 해 3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설비보수 계획이 연기되면 올해 12월에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없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경영자나 회사의 평판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 귀하가 위 시나리오에 있는 회사의 회계담당자라 가정하면 설비보수를 다음 해 3월까지 연기하려는 제안에 대해 다음 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 매우 반대	《=====		어느 쪽도 아님	=====》		연기 매우 찬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III. 아래 나열된 내용들을 읽으시고, 당신의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질문에 답하여 주십시오.

귀하의 의견에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 통	===》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업무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최상의 노력을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나는 주변 사람들과 내 업무의 전문성에 대해 얘기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나는 내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나는 나의 가치만큼이나 내 업무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우리 부서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나는 우리 부서의 직무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나의 업무를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얻어지는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우리 부서의 운명에 대해 많이 염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에게 이 업무는 최고의 업무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내가 이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나에게서 최대의 행운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거짓말이 도덕적인지 비도덕적인지 여부는 그 행동을 둘러싼 주변 상황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윤리라는 것은 상황과 사회에 따라 다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개인마다 도덕규범을 달리 판단한다. 즉 한 개인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인에게는 비도덕적일 수도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거짓말의 허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거짓말에 관한 일정한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윤리 규범으로 규정될 만큼 중요한 윤리적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6	개인은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7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는 항상 나쁜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개인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타인의 위엄과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타인의 안위를 희생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귀하의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